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57, No. 2

OPEN ACCESS

노인 독서 모임 참여자의 경험과 관계 형성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f Older Adults' Experiences and Relationship Formation in Book Clubs

임 성 관(Seong-Kwan Lim)*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방법
Ⅳ. 노인 독서 모임 참여자의 경험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독서 모임 참여자들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탐구하여, 이러한 경험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독서 모임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한 만 65세 이상 노인 7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들에게 독서 모임 참여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상호작용, 지적·정서적 만족을 동시에 제공하는 중요한 삶의 질 향상 경험이자, 타인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였다. 또한 독서를 통해 인지적 성장과 자기 성찰이 촉진되었으며, 나아가 새로운 사람들과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서적 친밀감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이 노인과 독서 모임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녕을 지원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 확대, 독서 모임 참여자 간 관계 형성과 네트워크 확대 지원에 관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노인, 독서모임, 참여 경험, 관계 형성, 현상학적 탐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henomenologically explore the experiences of older adults participating in a book club and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meanings these experiences hold in the process of form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To achieve this purpose,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older adults aged 65 and over who had participated continuously in a book club for more than two yea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result, for the elderly, participation in reading groups was an important experienc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at provides emotional stability, social interaction, and intellectual and emotional satisfaction beyond simple leisure activities, as well as an opportunity to naturally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others. In addition, reading promoted cognitive growth and self-reflection, and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emotional intimacy and belonging were formed in the process of sharing thoughts and emotions with new people. Therefore, based on these results, measures were proposed to strengthen the library's role as a community base space connecting the elderly and reading groups, to expand reading programs that can support the emotional st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to form relationships between participants in reading groups, and to support network expansion.

KEYWORDS : Older Adults, Book Club, Participation Experience, Relationship-building, Phenomenological Inquiry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kglimpro@kyonggi.ac.kr / ISNI 0000 0004 6363 6794)

• 논문접수: 2026년 5월 14일 • 최초심사: 2026년 5월 31일 • 게재확정: 2026년 6월 5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7(2), 303-330, 2026. http://dx.doi.org/10.16981/kliss.57.2.202606.303

※ Copyright © 2026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평균 수명의 연장은 노년기를 단순한 생애 말기가 아닌, 적극적인 삶의 단계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안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노년기의 삶의 질은 개인의 일상적 경험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의미 있는 사회 참여는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wles & Bernard, 2013).

노년기는 은퇴, 신체 기능 저하, 사회적 역할 축소 등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인들은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우울, 인지 기능 저하, 삶의 만족도 감소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acioppo & Hawkley, 2009). 특히 노인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접촉의 빈도보다 관계가 지니는 질과 의미가 중요하며,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관계 경험은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소속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Hawkley & Cacioppo, 2010).

독서 활동은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는 개인적 활동인 동시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독서 모임은 책이라는 공통의 매개를 통해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비교적 안전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노인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Long, 2003). 나아가 집단 독서 활동은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illington et al., 2010). 특히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가 우연적 만남보다는 일정한 맥락 속에서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독서 모임은 관계 형성의 과정을 탐구하기에 적합한 사회적 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노인 독서 활동 관련 연구들은 주로 프로그램 효과성이나 만족도, 참여 빈도 등 결과 중심의 양적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독서 모임 참여가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는 데 기여했으나, 노인들이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경험을 하며, 그러한 경험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고 구성되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독서 모임 참여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경험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여전히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의 생활 속에서 구성되는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현상학적 접근은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론적 틀로 판단된다(van Manen, 1990).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독서 모임 참여자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독서 모임 참여 과정에서 구성되는 경험의 의미와 그 경험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지니는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독서 프로그램 및 문화 활동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독서 모임의 개념과 의의

독서 모임은 주기적으로 만나서 읽은 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관련된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김지영, 이지연, 2023). 독서 모임은 대표적 사회적 활동으로, 자생적이고 활발한 독서 모임은 그 사회의 독서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이순영, 김주환, 2025)이자, 참여자들에게는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전국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설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서 동아리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게 되고, 독서를 통한 치유 및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회원들과 교류하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자기계발과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며, 봉사 같은 사회 공헌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는 등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Sedo(2003)는 독서 모임에서의 토론을 통해 책을 해석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세계와 자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였고, Penson(2011)은 특히 학생들의 경우 독서 모임을 통해 사회적인 능력을 키우며, 토론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UN(United Nations)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 등 여러 국제 기구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 발전 목표 북클럽(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ook Club)'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7개 목표를 독서와 토론 활동을 통해 이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The Reading Agency가 운영한 전국 독서 모임 네트워크인 '모두를 위한 독서 모임(Reading groups for everyone)'을 개편한 'Book Club Hub'를 통해 독서 모임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례들은 독서 모임이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연결, 문화적 확산을 동시에 촉진하는 유용한 사회적 활동임을 보여준다.

2. 노인 독서 활동의 의미와 효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기의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는 노년기를 단순히 생애 말기

가 아닌 적극적인 삶의 단계로 인식하며,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의 독서 활동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문화적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인 독서는 다양한 인지적·정서적 혜택을 제공하며, 기억력, 주의력, 사고력 등 인지 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일상에서 활력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독서는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하여 노인의 정신적 건강을 지지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노인 독서 모임이나 공동 독서 활동은 단순한 개인적 여가를 넘어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Milani et al., 2025). 특히 공공도서관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독서 프로그램은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문화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장으로 기능한다. 또한 독서는 자기 성찰과 삶의 의미 형성에도 기여하며, 노인의 자기실현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종합하면, 노인의 독서 활동은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안정, 사회적 연결, 문화적 차원에서는 평생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하면서도 다차원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3. 노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의 중요성

노년기는 은퇴, 신체적 기능 저하, 가족 및 사회적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증가시키며, 이는 우울, 인지 기능 저하, 삶의 만족도 감소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와 관련된다(Cacioppo & Hawkley, 2009).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프로그램, 동호회, 독서 모임, 문화·체육 활동 등은 노인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Long, 2003). 이와 같은 활동은 사회적 고립 예방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상호 지지망 형성에도 기여한다. 또한, 참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정서적 지원과 삶의 의미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적 관계는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노화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정서적 지지, 소속감, 상호 존중의 경험은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기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노인이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확인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게 한다(Hawkley & Cacioppo, 2010).

4. 선행 연구

노인의 독서 혹은 노인 독서 모임 참여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선행 연구는 본 연구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노인 독서 측면으로 구분해 각각 고찰하였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삶의 질과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었다. 임소영 외(2013)는 한국 노인의 사회관계망 유형을 가족 중심형, 제한형, 광범위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유형이 정서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 중심형이나 광범위형 관계망을 갖고 있는 노인이 제한형 관계망을 가진 노인보다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숙과 김윤태(2024)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망이 풍부할수록 삶의 만족과 정서적 안정이 높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김형민 외(2013)도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가족・이웃・친구 등 다양한 지지망의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이 증진됨을 보여주었다.

김세진과 이선희(2022)는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와 활동 변화를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사회적 참여와 연대감이 삶의 질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노인 독서에 관한 선행 연구는 독서 활동이 심리적・사회적 건강과 연결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노인의 독서 역량과 참여 형태, 그리고 그에 따른 활동 지원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순영과 김주환(2025)은 시니어 비독자 대상 독서 모임을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독서 모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독서 모임에 대한 영향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독서율이 모두 높아졌고, 2개월의 지연 기간을 거친 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독서 인식도와 독서 행동 향상 또한 향상되었다. 따라서 노인 대상 독서 모임은 운영만으로도 독서 인식도, 독서 인식도, 독서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진수(2025)는 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 참여 노인의 독서 경험을 질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경험이 여가의 진지성(serious leisure)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했다. 이 연구는 독서 활동이 단순한 여가 행위를 넘어서, 인지적 자극, 정서적 만족, 그리고 사회적 관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질적 경험임을 보여주었다.

Milani et al.(2025)는 독서를 기반으로 한 공유 읽기(shared reading)나 독서 모임이 노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외로움 감소,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특히 공동 독서 그룹 활동이 의사소통 능력 강화, 사회적 관계 만족도 증가, 외로움 감소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으며, 공유 읽기 기반 모임이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과 심리・사회적 웰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지영(2023)은 노인 독자의 독서 수준을 기준으로 이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로 적합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독자들이 각자의 독서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 참여를 확산하고, 인지적 만족과 사회적 독서 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지영과 이지연(2023)은 인구 고령화와 세대 간 교류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세대 교류(intergenerational exchange)를 위한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참여자들의 경험을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세대 간 교류 기회가 적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독서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이러한 만남이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 모임은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관계의 질, 지지망의 폭, 활동 참여 등 다층적 요소로 구성되며, 이러한 관계망이 삶의 질, 정서적 안정,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 독서 활동이 인지적·정서적 기능을 지원할 뿐 아니라,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독서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망의 효과를 측정하는 양적 연구에 집중되어, 노인들이 독서 모임 참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심층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연구에서는 세대 간 교류,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 관계 형성 과정의 질적 분석을 포함한 사례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노인 독서 모임 참여자의 경험을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참여자가 느끼는 사회적 관계 형성의 의미를 규명하고, 향후 노인 독서 프로그램 설계와 문화 활동 기획에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 독서 모임 참여자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현상학은 인간의 경험을 객관적 변수로 환원하기보다, 참여자가 자신의 생활세계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탐구하는 질적 연구 접근이다(van Manen, 1990).

특히 본 연구는 독서 모임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은 독서 모임 참여의 결과나 효과를 측정하기보다, 참여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현상학적 접근과 부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독서 모임 참여 경험의 의미 구조를 탐색하는 현상학적 연구 설계를 적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독서 모임 참여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험과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충분히 갖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I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24년 4월에 독서 모임이 결성된 이후, 2026년 6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월 2회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7명으로, 성별은 남성 1명과 여성 6명, 평균 연령은 73.1세이고, 총 50번의 모임에 최소 30회, 최대 50회, 평균 42.1회 참석한 분들이다. 다음의 〈표 1〉은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연구 참여 대상

참여자 번호	성명	성별	나이	모임 참석 횟수
1	김**	남	78	42회
2	이**	여	75	40회
3	박**	여	74	46회
4	김**	여	74	50회
5	이**	여	73	30회
6	김**	여	71	46회
7	양**	여	67	41회

3. 면담 질문 구성

자료는 노인 독서 모임 참여자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를 근거로 도출한 면담 질문을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면담 질문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정서적·인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Cacioppo와 Hawkley(2009), Hawkley와 Cacioppo(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참여자가 독서 모임을 통해 경험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 과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어서, World Health Organization(2015) 및 Rowles와 Bernard(2013)의 연구에서 강조된 노년기의 삶의 질과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근거로, 독서 모임 참여가 참여자의 일상과 삶의 만족도, 사회적 소속감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더불어, Billington et al.(2010)의 연구는 독서 활동이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어, 참여자가 모임에서 느낀 정서적 변화와 경험의 의미를 깊이 탐색하는 질문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노년층의 평생학습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기관으로서,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FLA(2003)는 공공도서관이 평생학습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한다고 보았으며,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9)는 도서관이 노년층의 지속적인 학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독서 모임 참여 경험이 도서관 이용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참여자들이 도서관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상학적 연구 접근의 핵심을 제시한 van Manen(1990)과 Colaizzi(1978)의 방법론에서는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열린 질문이 강조되므로, 면담 질문은 참여자의 언어와 경험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면담 질문은 참여자의 경험, 사회적 관계, 정서적 변화, 의미 인식 등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도서관과의 연결 영역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독서 모임 참여 경험이 노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도서관과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다음의 〈표 2〉는 면담을 위해 구성한 질문을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면담 질문 구성 내용

영역	질문
참여 경험 탐색	1.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참여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2. 모임 참여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3.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4. 모임 참여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정서적·심리적 변화	5. 독서 모임 참여 후 느낀 감정이나 정서적 변화가 있나요?
	6. 모임이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데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의미와 가치 인식	7. 독서 모임 참여 경험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8. 이 경험이 앞으로의 삶이나 일상생활에 어떤 가치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서관과의 연결	9. 독서 모임 참여나 개인의 독서 활동이 도서관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10. 독서 모임 활성화 및 유지를 위해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면담 질문은 참여 경험 탐색,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정서적·심리적 변화, 의미와 가치 인식, 도서관과의 연결 영역에서 각각 2개씩 총 10개로 구성되었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6년 2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독서 모임이 끝난 후 매회 한 분만을 대상으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경기도 I시 노인종합복지관 내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 반구조화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과정은 참여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을 서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든 과정은 녹음과 필사 기록을 통해 확보되었다. 이러한 자료 수집 절차는 연구 질문과 목적에 맞게 참여자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해석하여 주제를 도출하는 7단계 절차로 구성되며, 참여자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본질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의 〈표 3〉은 Colaizzi의 분석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

단계	방법	내용
1	전체 자료 읽기	전사한 면담 내용을 여러 차례 정독하여 참여자의 경험 전반을 이해한다.
2	의미 있는 진술 추출	참여자의 경험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을 선정한다.
3	의미 부여	각 의미 있는 진술에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부여한다.
4	공통 주제 도출	의미들을 유사성 또는 관련성에 따라 그룹화하여 핵심 주제와 하위 주제를 도출한다.
5	풍부한 서술 작성	도출된 주제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기술한다.
6	본질적 구조 확인	참여자의 경험 전체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구성하고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한다.
7	참여자 검증	분석 결과를 참여자에게 확인하여 연구자의 해석이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필요시 수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Colaizzi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총 7명의 노인 독서 모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담 자료를 모두 전사하였으며, 녹음된 면담 시간은 총 14시간 전사 분량은 A4 기준 24페이지였다. 전사된 자료는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은 연구자가 직접 코딩하여 의미 단위를 부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 진술의 맥락적 의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후 유사한 의미 단위는 지속적인 비교와 반복적 검토 과정을 통해 범주화되었고, 이를 통해 하위 주제와 핵심 주제(주제군)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주제들은 참여자의 실제 경험 맥락과 부합하는지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Colaizzi 분석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1) 면담 자료의 반복적 읽기를 통한 전체 경험 이해, (2) 의미 있는 진술 추출, (3) 의미 단위(구성의미) 도출, (4) 유사 의미의 범주화 및 하위 주제 도출, (5) 하위 주제의 통합을 통한 주제군 형성, (6) 주제군을 중심으로 한 경험의 구조적 재서술, (7) 참여자 검증을 통한 최종 확인의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단계는 단순한 자료 정리가 아니라 참여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구조화하는 분석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분석 결과는 면담 질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 간의 반복적 비교와 통합 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제군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 경험의 공통성과 차이를 동시에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독서 및 노년학 분야 전문가 2인의 검토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2026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분석 결과(의미 단위, 주제 구조)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메일 및 서면을 통해 의견을 회신하였다. 전문가 간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원자료로 재확인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참여자 검증(member checking)을 위해 분석 결과를 각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메일 활용이 어려운 일부 고령 참여자의 경우에는 직접 대면하여 결과를 설명하고 확인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표현은 참여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분석 과정의 신뢰성(trustworthiness)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후 도출된 의미 단위와 주제 구조의 분석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다음의 〈표 4〉에 의미 단위 분석 및 주제 도출 과정 예시를 제시하였다.

〈표 4〉 의미 단위 분석 및 주제 도출 과정 예시

의미 있는 진술	구성 의미	하위 주제	주제군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로웠다.	지속적인 단독 생활 속에서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정서적 공백을 인식함	사회적 고립 경험	참여 경험 탐색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	독서를 매개로 타인과 사고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만족과 상호작용 욕구가 충족됨	상호작용 경험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모임에 참여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사회적 교류 참여를 통해 정서적 긴장 완화 및 심리적 안정 상태를 경험함	정서적 안정 경험	정서적·심리적 변화
모임 덕분에 삶에 활력이 생겼다.	반복적인 일상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재활성화 경험	일상 활력 변화	의미와 가치 인식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	독서 활동이 생활 공간의 확장으로 이어지며 도서관 이용 행동 변화가 발생함	도서관 이용 변화	도서관과의 연결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는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였

다. 연구 과정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와 익명성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참여자는 언제든 연구 참여를 철회할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러한 절차는 연구 윤리 기준을 준수하고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Ⅳ. 노인 독서 모임 참여자의 경험 분석

본 장에서는 노인 독서 모임 참여자의 경험을, 참여 경험의 탐색,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정서적・심리적 변화, 그리고 의미와 가치의 인식, 도서관과의 연결이라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범주는 Colaizzi의 분석 절차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의 반복적 비교와 범주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제군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1. 참여 경험 탐색

첫 번째 영역은 '참여 경험 탐색'으로, 이 절에서는 참여자가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계기, 참여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 그리고 모임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 경험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심층적으로 확인하였다.

가. 참여 동기 및 계기

노인 독서 모임 참여자의 참여 동기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는 평소 독서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지적 자극을 기대하며 모임에 참여한 반면, 다른 참여자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외로움 해소를 중요한 동기로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의 답변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롭고 심심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기대됐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어색했지만, 몇 번 참여하다 보니 조금씩 편해졌어요." (참여자 1)

> "평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모임에 나오면 책도 읽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초반에는 책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 조금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2)

> "매일 집에만 있으니 생활이 단조로웠는데, 독서 모임에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활에 활력이 생겼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좋았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낯선 모임 분위기에 긴장했었습니다." (참여자 3)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평소 관심 있던 주제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참여자 4)

"혼자서는 책을 읽어도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흥미가 떨어질 때가 많았어요. 모임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시야가 넓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5)

"주변 친구가 거의 없어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책을 매개로 하면 어색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처음 모임에서는 낯선 분위기 때문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6)

"밖에 나갈 기회가 적은 편인데, 모임에 나오면 책도 읽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생활이 활기차질 것 같았어요. 다만 모임 초반에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여자 7)

분석 결과, 참여 동기는 개인의 심리적 성향과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필요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단순한 여가 활동 참여를 넘어,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 지적 자극이라는 복합적 기대를 갖고 모임에 참여하였다. 특히 참여 초기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 관계 형성의 부담, 토론 참여의 어려움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경험은 반복적인 참여 과정에서 점차 완화되었다. 동시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축적되면서 사회적 편안함과 소속감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독서 모임 참여가 단순한 활동 참여가 아니라, 초기의 심리적 장벽을 경험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안정으로 확장되는 적응적 경험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참여 동기는 고정된 출발점이 아니라, 이후 경험의 질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조건으로 기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참여 과정의 경험 및 일상생활에의 영향

이 절에서는 참여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을 의미 단위로 범주화하여 토론 경험과 일상 변화의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진술은 크게 (1) 상호작용 및 토론 경험, (2) 관계 형성 경험, (3) 자기표현 및 성취 경험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범주별 의미 있는 진술은 다음과 같다.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반복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1)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모임 활동 덕분에 지역 문인협회에서 상을 받고 시인으로 등단할 수 있었던 것도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초기에는 발표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모임에서 받은 격려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배움도 짧은데 열심히 하니까 이런 영광도 얻게 되었네요.”(참여자 2)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분들 얘기를 따라가는 게 어려워서 듣기만 했는데, 저도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들이 잘 들어주시니 점점 마음도 편해졌습니다.”(참여자 3)

“토론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어 신선했습니다. 가끔 제가 재배한 채소를 나누면서 서로 더 가까워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책 읽는 모임에 이런 걸 싸 와도 되는 건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다들 고맙다며 받아 가시고, 또 맛있게 드셨다고 해주셔서 더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겼답니다.”(참여자 4)

“책을 읽은 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말이 맞는 건지,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분들이 지루하게 여기지 않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라서 지금은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이야기합니다.”(참여자 5)

“함께 읽은 책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작은 책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물이 좋을 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참여자 6)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모임 활동에 익숙해지면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사회적 활동을 얻으면서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참여자 7)

또한 모임 참여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은 (1) 생활 리듬 변화, (2) 심리적 안정, (3) 사회적 활동 확장으로 나타났다.

“모임에 참여하면서 하루 일과가 규칙적이게 되었습니다.”(참여자 1)

“정기적인 모임 덕분에 외출할 기회가 많아졌고, 시를 쓰고 발표하면서 일상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참여자 2)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생각할 시간이 생겨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참여자 3)

"모임 후 일상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참여자 4)

"책과 사람을 통해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참여자 5)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모임 덕분에 외로움을 덜 느꼈습니다." (참여자 6)

"새로운 취미와 사회적 활동을 얻어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참여자 7)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독서 모임에서 다양한 활동 경험과 성취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였다. 토론과 책 나눔, 개인적 성취(시 창작을 통한 등단), 소소한 나눔 활동(채소 및 책 선물)을 경험하며 사회적 친밀감과 자기표현의 만족감이 강화되었다. 또한 모임 참여가 일상생활의 활력과 규칙성, 외출과 사회적 활동 증가, 스트레스 완화, 외로움 감소 등 구체적인 생활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 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모임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 자기실현을 동시에 제공하는 장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독서 모임 경험이 단일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상호작용-정서-일상 변화로 이어지는 다층적 경험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 차원의 만족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과 역할 재구성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보였다.

2.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두 번째 영역은 노인 독서 모임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이 절에서는 모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교류와 관계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와 상호작용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였다. 이 절에서의 경험은 크게 (1) 모임 내 상호작용 경험, (2) 관계 형성과 친밀감 확장 경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 모임 내 상호작용 경험

참여자들은 독서 모임 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상호작용 경험을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분들 의견을 따라가는 게 어려웠지만, 이야기하다 보니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 즐거웠습니다." (참여자 1)

"토론 중에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흥미로웠습니다. 질문하고 답하다 보니 다른 분들을 조금씩 알게 되고, 모임이 끝난 뒤에도 언니 동생하며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2)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조금씩 제 이야기도 하고 자식이나 손자들 이야기, 집안 이야기도 하니까 공감대도 쉽게 형성되고 더 빨리 친해진 거 같아요." (참여자 3)

"이 나이에는 누구를 만나 친구가 되는 게 어렵잖아요. 특히 저는 내성적인 편이라 처음 보는 사람과 친해지려면 오래 걸리는데, 어느덧 이제는 집에도 놀러 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참여자 4)

"모임에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 서로 맞춰가며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제가 말을 잘 안 듣는다, 고집이 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임에서도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다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도와주고 맞춰가니까 저도 고집을 안 부리게 된 것 같습니다." (참여자 5)

"다른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말씀들을 재미있게 잘하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새로운 지혜도 배웁니다." (참여자 6)

"이게 제대로 하는 토론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형식이 뭐 중요하겠어요.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그러면서 공감도 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 7)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모임 초반의 낯섦과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반복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상호작용 과정은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개인 간 관계 형성으로 확장되었으며, 일부 참여자는 모임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이나 사적 교류로 관계가 이어지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는 독서 모임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새롭게 형성된 관계와 그 의미

참여자들은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관계가 개인적으로 의미 있음을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혼자만 남자라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다들 잘 대해주셔서 편했고,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람도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겠다고 해서 계속 혼자 와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1)

"책을 매개로 만나는 관계라서 더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소중하고, 모임 끝나고도 서로 관심사를 공유하게 돼서 좋습니다." (참여자 2)

"같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즐겁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먼 곳에 사는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웃고 공감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다음 모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참여자 3)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외로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책을 읽고, 모임 생각하면서 글도 쓰니까요." (참여자 4)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즐겁고 항상 힘이 됩니다. 특히 각자 읽은 좋은 책을 추천도 해주고 빌려도 주니 계속 읽을 수 있는 점도 매우 좋습니다." (참여자 5)

"독서 모임 친구들과의 만남이 일상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건강하게 오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6)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독서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참여자 7)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독서 모임을 통해 편안함, 즐거움, 소속감, 일상의 활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인간관계 형성을 넘어, 책이라는 공통 매개를 중심으로 한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정기적인 만남과 상호 교류를 통해 친밀감과 신뢰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외로움 감소와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모임 경험이 독서 및 글쓰기 활동으로 확장되는 등 개인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독서 모임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 확장과 관계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험으로 확인되었다.

3. 정서적·심리적 변화

세 번째 영역은 독서 모임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정서적·심리적 변화에 관한 것으로, 참여 후 느끼는 감정의 변화,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관련된 심리적 경험을 중심으로 참여자

들의 내면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의 경험은 크게 (1) 정서적 안정 및 감정 변화, (2)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 완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 참여 후 느낀 감정과 정서 변화

참여자들은 독서 모임 참여 후 긍정적인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모임에 참여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부인이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집에서 쓸쓸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면 마음이 풍성해지는 기분입니다." (참여자 1)

> "책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기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임에서 다른 회원님들이 보내주시는 격려나 칭찬 덕분에 스스로 성장하는 느낌이 듭니다." (참여자 2)

>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일상에 활력이 생겼고, 하루가 더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유튜브나 보는 등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참여자 3)

> "토론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접하고, 새로운 시각을 배우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참여자 4)

>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혼자 읽을 때는 본인의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니 폭이 좁잖아요, 그런데 저 외에도 여섯 명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 훨씬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참여자 5)

> "모임에 참여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새 심리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좋아하는 모임이 되었나 봐요." (참여자 6)

> "모임 덕분에 스트레스가 줄고, 평소보다 기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잔소리도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독서 모임에 더 자주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여자 7)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정서적 경험은 크게 정서적 안정, 심리적 만족, 일상 활력의 회복으로 범주화될 수 있었다. 모임 참여 전 경험했던 외로움, 심리적 허전함, 일상의 무료함은 반복적인 상호작용과 의견 교류, 격려 경험을 통해 점차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정서적 안정 경험이 가족 관계 및 일상 스트레스 조절로 확장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독서 모임이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정서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촉진하는 경험임을 의미한다.

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영향

참여자들은 독서 모임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모임에 나오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외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대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자꾸 말할 수 있는 곳, 대화가 통화는 사람을 찾아 나오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혼자라는 생각이 덜 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심지어 모임 끝나고 집에 돌아가도 문득문득 그날 있었던 얘기를 떠올리면 혼자 웃음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2)

>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즐겁고 외로움이 줄었습니다. 특히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어느 약이 좋다, 어느 병원이 치료를 잘한다와 같이 도움 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자 3)

> "모임에 나오는 것이 일상에서 큰 기대가 되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만났기 때문에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책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 책 이야기만 해야 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벌써 그만두었을지도 몰라요." (참여자 4)

> "책과 이야기를 매개로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니, 혼자가 아니란 느낌이 들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책을 읽으면 작가나 책 속의 인물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 사람들은 아니니까 한계가 있지요." (참여자 5)

> "모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혼자라는 느낌이 거의 사라지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특히 크고 작은 고민을 털어놓으면 서로 도우려고 해주시는 부분이 정말 든든합니다. 이게 무슨 복인가요." (참여자 6)

> "참여 전에는 집에만 있으면서 외로웠는데, 모임 덕분에 외로움이 줄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저를 보면 활기차고 좋아진 것 같다고 합니다." (참여자 7)

분석 결과,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 경험은 단순한 정서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단절감과 관계 결핍에서 비롯된 구조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독서 모임 참여는 이러한 경험을 완화하는 주요 기제

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정기적인 만남과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 형성이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정서적 지지와 일상적 소통을 경험하면서 혼자가 아님을 체감하였고, 이는 사회적 연결감과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독서 모임은 외로움 해소를 넘어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삶의 정서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기능하였다.

4. 의미와 가치 인식

네 번째 영역은 참여자들이 독서 모임 경험에서 인식하는 의미와 가치에 관한 것으로, 참여 경험이 개인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 경험에서 의미 있었던 순간

참여자들은 모임 참여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을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책을 읽고 토론할 때, 평소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면 참 신기합니다. 다른 회원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가끔은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참여자 1)

> "모임에서 누군가의 경험이나 시를 듣고 공감할 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냥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는구나 싶어요." (참여자 2)

>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참여할수록 제 생각도 유연해지고 사고 폭이 넓어지는 기분이에요. 특히 김** 선생님이 남자분이라서 남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여자 3)

> "처음에는 토론이 어렵고 긴장되었지만 참여할수록 성취감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뭔가 배웠다' 하는 느낌이 들고, 함께 배우고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참여자 4)

> "책을 통해 평소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이나 생각을 접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의미 있었어요. 남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제 일과 겹쳐서 생각할 때도 있고요." (참여자 5)

> "같은 책을 읽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면서 어느새 이만큼 친해졌다는 게 신기하고 좋지요. 이건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거니까요." (참여자 6)

"책과 모임 사람들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가장 값졌습니다.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고, '앞으로도 이분들과 함께하면 힘이 되겠다' 하는 안도감과 즐거움이 함께 느껴졌어요." (참여자 7)

분석 결과, 참여자들이 경험한 의미 있는 순간은 단순한 활동 경험이 아니라, 인지적 확장과 관계적 이해, 자기 성찰이 동시에 발생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즉 독서 모임에서의 토론과 경험 공유는 개인의 기존 사고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타인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 의견을 접하면서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의미 해석의 재구성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은 정서적 공감과 친밀감 형성을 동반하면서 사회적 연결감의 강화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독서 모임에서의 '의미 있는 순간'은 인지적 확장, 정서적 공감, 관계적 연결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경험으로 구조화되며, 이는 참여자의 자기 이해와 삶의 재해석을 촉진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였다.

나. 참여 경험이 삶과 일상에 준 가치

참여 경험은 참여자들의 삶과 일상에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모임에 나오면서 매일 반복되던 일상이 활기차게 바뀌었고, 작은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해야죠. 안 나오면 굉장히 허전할 것 같아요." (참여자 1)

"책과 사람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접하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느낌이에요. 70이 넘은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고, 모임 덕분에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은 계속 배워야겠지요?" (참여자 2)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와 나눈 의견 덕분에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생겨 좋았습니다. 혼자라면 그냥 지나쳤을 부분도 모임에서 생각하게 되니 좋네요." (참여자 3)

"참여하면서 앞으로 시도를 해보고 싶은 일들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작도 못했을 일들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었으니, 저도 용기가 많아졌네요." (참여자 4)

"책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지적인 만족감도 줬어요.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하고, 또 아는 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허영이 있는 거지요." (참여자 5)

"모임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 식구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 6)

"독서와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삶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것들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단 저도 글을 써서 등단을 해볼까요?" (참여자 7)

분석 결과, 독서 모임 참여 경험이 참여자들의 삶에 제공한 가치는 일상 변화, 자기 성찰, 관계적 안정, 그리고 행동 변화의 촉진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모임 참여를 통해 일상의 활력과 규칙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었다. 또한 책과 토론을 매개로 한 경험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새로운 도전 의지나 자기표현 활동으로의 확장이 나타나, 모임 경험이 삶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독서 모임은 참여자들에게 단순한 사회 활동이 아니라, 일상 회복과 자기 확장, 그리고 미래 지향적 태도 형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복합적 경험 구조로 작용하였다.

5. 도서관과의 연결

다섯 번째 영역은 독서 모임 참여와 개인 독서 활동이 도서관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도서관이 모임의 활성화와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 활동과 사회적 경험과 연결되는 방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가. 도서관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

참여자들은 독서 모임과 개인 독서 활동을 통해 도서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모임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들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책을 사서 읽었는데 지금은 도서관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는 도서관에 가서 여러 책을 찾아보고 빌려서 읽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참여자 1)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고 공지한 책이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미리 찾아보고 읽게 되면서, 도서관을 더 자주 가게 되었어요. 평일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서 조용하니 좋더라고요." (참여자 2)

"먹고 살기가 바빠서 도서관에는 거의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임 덕분에 도서관에도 가고 대출 카드도 만들었네요. 덕분에 도서관은 일부러 가는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책도 읽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참여자 3)

"책을 읽고 토론할 때 자료가 필요하면 도서관을 찾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도서관과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자주 가게 됩니다." (참여자 4)

"도서관에 가면 책도 빌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독서 모임과 연결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혼자서 책을 읽을 때보다 활용도가 훨씬 높아요." (참여자 5)

"독서 모임 전에는 도서관에 잘 안 갔는데, 모임에서 필요한 책을 찾으면서 도서관 이용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별로 안 오는지, 아니면 동네가 작아서 사람을 쉽게 기억하는지, 거기 일하는 직원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참여자 6)

"도서관이 집에서 가까워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젊은 사람들이나 가지, 나 같은 사람이 가면 괜히 피해만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독서 모임에서도 같이 가보고, 지금은 혼자도 가 버릇하니까 좋더라고요. 어릴 때는 저도 책장에 책이 많은 집을 꿈꿨거든요." (참여자 7)

참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독서 모임 참여는 도서관 이용을 단순한 자료 대출 행위에서 사회적·학습적 활동으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즉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독서 모임 활동과 개인 독서를 연결하는 실천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모임에서 제시된 도서를 중심으로 도서관을 방문하고, 자료 검색 및 프로그램 참여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면서 도서관을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수동적 이용 방식에서 능동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이용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도서관은 독서 활동의 외적 배경이 아니라, 독서 경험을 지속시키고 심화시키는 사회적 인프라로서 기능하며, 참여자의 독서 습관 형성과 사회적 연결 강화에 동시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나. 독서 모임 활성화 및 유지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

참여자들은 독서 모임이 지속적이고 재미있게 운영되기 위해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역할을 제안하였다.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모임이 계속 재미있으려면 도서관에서 책도 다양하게 추천을 해주고, 우리가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자리

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안 나오고 싶을 때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문의를 해봤는데, 도서관에서 구성한 팀이 아니라서 장소 대관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1)

"책뿐만 아니라 모임 진행과 관련된 안내나 자료를 잘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혼자 찾아보는 것보다 도서관이 미리 정리 해주면 훨씬 편하고 모임에도 도움이 돼요." (참여자 2)

"도서관에서 우리 같은 노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강좌를 더 많이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임 회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 더 자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3)

"저희는 복지관에서 만들어진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도 노인 대상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반을 여러 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모임이 있으면 시간이 많은 노인들이 더 자주 도서관에 가겠지요." (참여자 4)

"책을 추천해 주거나 새로 나온 책 소식을 알려주는 것도 좋고, 때때로 작가 초청이나 강연 같은 기회가 있으면 독서 모임에게는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5)

"도서관 직원들이 독서 모임 회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나 도움을 바로바로 제공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갈 때마다 독서 모임 회원이다,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친근하게 대해주면 더 자주 가고 싶더라고요." (참여자 6)

"우리 같은 사람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다는 느낌이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안내해 주고, 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7)

참여자들의 제안을 종합하면, 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제공 기관이 아니라 독서 모임의 형성, 유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이 공간, 정보, 프로그램, 관계 지원이라는 다층적 기능을 통해 독서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참여자들은 공간 제공, 자료 지원, 프로그램 확대, 친숙한 서비스 경험 등을 통해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고령 학습자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직원과의 관계 경험 역시 도서관을 단순한 기관이 아닌 친숙한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도서관은 독서 모임을 매개로 개인의 독서 경험을 사회적 경험으로 확장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노년층의 사회적 참여와 학습 지속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 독서 모임 참여자의 경험과 그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 정서적・심리적 변화, 의미와 가치, 도서관과의 연결에 대한 측면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독서 프로그램 설계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독서 모임 참여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상호작용, 지적・정서적 만족을 동시에 제공하는 중요한 삶의 질 향상 경험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모임 참여를 통해 일상에서 느끼던 외로움과 고립감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충전과 안정감을 얻었다.

둘째, 독서 모임은 참여자 간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참여자들은 모임을 통해 사회적 친밀감과 소속감을 경험하며, 단순한 친교를 넘어 깊이 있는 정서적 지지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관계 경험은 외로움 감소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삶에 활력과 만족감을 제공하였다.

셋째, 책 읽기와 토론을 통한 인지적 성장과 자기 성찰이 촉진되었다.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접하며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일상생활과 미래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로도 이어졌다.

넷째, 독서 모임 참여는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재확인하게 하고, 새로운 도전과 경험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모임 참여를 통해 얻은 지적・정서적・사회적 경험은 참여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일상생활의 활력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독서 모임을 통해 도서관과의 연결을 경험하며, 도서관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가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도서관을 책 대출 공간뿐 아니라 모임 정보 제공, 프로그램 참여,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노인 독서 모임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과 노인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녕을 지원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독서 모임을 통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기적인 독서 모임 운영과 안정적인 참여 환경 조성을 통해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관 담당자 및 프로그램 기획자는 노인의 인지적 성장과 자기 성찰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기반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독서 토론, 글쓰기, 독후 활동, 작가와의 만남 등은

노인들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독서 모임 운영자는 참여자 간 관계 형성과 사회적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독서 모임을 통해 친밀감과 소속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규모 그룹 활동, 참여자 간 상호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신뢰와 유대감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서관은 노인과 독서 모임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서 모임 참여를 계기로 도서관 이용이 자연스럽게 확대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노인들이 도서관을 자료 이용뿐 아니라 학습과 교류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인 독서 모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도서관, 복지관,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노인 대상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노인의 사회 참여와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참여자의 발화를 직접 반영한 경험 중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학문적 의의뿐 아니라 실천적 프로그램 설계와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기반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 향상, 정서적 안정, 의미 있는 경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노인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김세진, 이선희 (2022).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의 변화. 보건복지포럼, 311, 77-91. https://doi.org/10.23062/2022.09.6

김지영, 이지연 (2023).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모임의 세대교류 및 사회적 독서 경험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0(1), 23-50. https://doi.org/10.3743/KOSIM.2023.40.1.023

김형민, 심경보, 김환, 김석범 (2013). 지역사회 거주 일반노인의 사회적지지, 사회적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3(1), 11-20.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전국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설계 연구 보고서. 출처: https://www.mcst.go.kr/site/s_policy/dept/deptView.jsp?pSeq=1741&pDataCD=0406000000&pType=04

박명숙, 김윤태 (2024). 한국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활용한 통계 분석. 사회통합연구, 5(2), 1-41.

이순영, 김주환 (2025). 시니어 비독자 대상 독서모임 운영의 효과 연구: '전문가 운영 모임'과 '자율 운영 모임'의 결과 비교. 리터러시연구, 16(3), 315-344.

임소영, 강민아, 조성일 (2013). 노인의 사회관계망 유형과 건강상태의 관계: 남녀집단별 분석. 노인복지연구, 59, 281-308. http://dx.doi.org/10.21194/kjgsw..59.201303.281

정진수 (2025). 진지한 여가로서 시니어 독서 경험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4), 181-204. https://doi.org/10.16981/kliss.56.4.202512.18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9). Library Services to Older Adults Guidelines. Available: https://www.ala.org/Template.cfm?Section=adultlibrary&template=/ContentManagement/ContentDisplay.cfm&ContentID=26943

Billington, J., Davis, P., & Farrington, G. (2013). Reading as participatory art: An alternative mental health therapy. Journal of Arts & Communities, 5(1), 25-44. https://doi.org/10.1386/jaac.5.1.25_1

Billington, J., Dowrick, C., Hamer, A., Robinson, J., & Williams, C. (2010). An Investigation into the Therapeutic Benefits of Reading in Relation to Depression and Well-being. Liverpool: University of Liverpool.

Cacioppo, J. T. & Hawkley, L. C. (2009). Perceived social isolation and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3(10), 447-454. https://doi.org/10.1016/j.tics.2009.06.005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8-71.

Hawkley, L. C. & Cacioppo, J. T. (2010). Loneliness matter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of consequences and mechanism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40(2), 218-227. https://doi.org/10.1007/s12160-010-9210-8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03). The Role of Libraries in Lifelong Learning. Available: https://www.ifla.org/publications/the-role-of-libraries-in-lifelong-learning/

Long, C. (2003). The social benefits of reading groups for older adult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2(3), 219-236. https://doi.org/10.1177/0733464803022003004

Longden, E., Davis, P., Carroll, J., Billington, J., & Kinderman, P. (2016). An evaluation of

shared reading groups for adults living with dementia: Preliminary findings. Journal of Public Mental Health, 15(2), 75-82. https://doi.org/10.1108/JPMH-06-2015-0023

Milani, C., Biagi, C., Palmieri, E., Rosi, C., Buresta, D., Iocca, F., Wetzell Cabrera, F., Zanobini, P., Lorini, C., & Bonaccorsi, G. (2025). Shared reading interventions to promote psychosocial well-being in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40(2), Article daaf036. https://doi.org/10.1093/heapro/daaf036

Penson, W. (2011). Using book clubs in higher education. Hektoen International: A Journal of Medical Humanities, 3(3). Available: https://hekint.org/2017/01/29/using-book-clubs-in-higher-education/

Rowles, G. D. & Bernard, M. (2013). Environmental Gerontology: Making Meaningful Places in Old Age. New York: Springer.

Sedo, D. R. (2003). Readers in reading groups: An online survey of face-to-face and virtual book clubs. Converg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to New Media Technologies, 9(66), 66-90. https://doi.org/10.1177/135485650300900105

The Reading Agency (2025). Book Club Hub. Available: https://readingagency.org.uk/

United Nations (2019). SDG Book Club - SDG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Available: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dgbookclub/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ung, Jin-Soo (2025). A study on senior reading experiences as serious leisure: Focusing on participation in public library reading clubs. Th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6(4), 181-204. https://doi.org/10.16981/kliss.56.4.202512.181

Im, So-Young, Kang, Min-Ah, & Cho, Sung-Il (2013). Social network and health status among korean elders social network and health status among korean elde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9, 281-308. http://dx.doi.org/10.21194/kjgsw..59.201303.281

Kim, Hyeong-Min, Sim, Kyoung-Bo, Kim, Hwan, & Kim, Souk-Boum (2013).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 on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in a local community.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3(1), 11-20.

Kim, Ji-Young & Lee, Jee-Yeon (2023).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young and old participating in an intergenerational book club and social read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0(1), 23-50. https://doi.org/10.3743/KOSIM.2023.40.1.023

Kim, Se-Jin & Lee, Sun-Hee (2022). Changes in social relations and activities of the elderly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311, 77-91. https://doi.org/10.23062/2022.09.6

Lee, Soon-Young & Kim, Joo-Hwan (2025). Effectiveness of reading groups for senior non-readers: A comparative study of expert-led and self-managed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16(3), 315-344.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Research Report on Survey Design for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Reading Clubs. Available: https://www.mcst.go.kr/site/s_policy/dept/deptView.jsp?pSeq=1741&pDataCD=0406000000&pType=04

Park, Myung-Suk & Kim, Yun-Tae (2024). Social isol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in Korea: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2020 Korean Retirement Income Study(KReIS). Social Integration Research, 5(2), 1-41.